4평 방에 9명 몰아넣고 모욕 주고…여성 재소자 인권은 없다

지역 A교도소 수용자 "생리대 달라고 하니 생리 양 확인 지시"

인권위, 진정 3건 '인권침해' 판단 "법무부 개선책 마련" 주문

4평짜리 교도소 방에 여성 수용자 9명을 몰아넣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여성 수용자의 요청을 받은 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은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심지어 가족사진첩까지 자해 우려가 있다며 회수해가고….

모두 광주·전남 소재 A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수용자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3가지 사례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 교도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 교도소 공통 사항이라고 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여성 수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의무과장에 대해선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고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 측이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소장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여성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A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만큼 과밀수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또다른 결정문에서 지역 A교도소가 수용자의 가족사진첩 보관을 막은 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산 물품(사진첩)을 교도소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교도소 측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수용자를 조사할때 사진첩을 물품 상자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만 조사실 내부에 반입해 사용하도록 했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 나비축제 개막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열리는 함평나비대축제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1명에 새 생명 전하고 떠났다

뇌사 50~60대 남성 2명 장기기증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60대 남성 2명이 이웃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떠났다. 이들이 건네준 장기 덕분에 11명이 새 삶을 살게 됐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신모(65)씨, 김석희(57)씨 두 사람이 최근 폐·간·신장 등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해 11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게 됐다.

신씨는 지난 13일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삿짐센터 일을 보던 신씨는 지난해 6월 노후 아파트 방충망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10개월 동안 투병했으나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신씨 아들은 "아버지가 다니던 성당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서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 기증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0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이틀 만에 뇌사판정을 받은 김씨도 신장 2개, 각막 2개, 간, 폐를 기증했다.

고인의 형인 김희성(59)씨는 "동생은 일평생 고단한 삶을 살았다"며 "어머니는 동생이 초등학생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6·25 참전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술에 빠져 사셔서 동생은 일찍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희성씨에 따르면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후 곧바로 일터로 나섰다. 양봉을 업으로 삼았던 고인은 아까시꽃이 피는 밀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삶을 이어갔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단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희성씨는 "평생 고생만 한 동생이 하늘에선 옛 일은 다 잊고 하고 싶어 했던 공부도 실컷 하며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2만7701명이었던 장기 이식 대기 환자는 2018년 3만 544명→2019년 3만 2990명→2020년 3만 5852명→2021년 3만 9261명으로 늘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게 현실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란 대로 가?

전남노동권익센터, 고3 실태조사…학교측, 기업 선정 과정서 학생 배제

전남지역 특성화고교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기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학교 대부분은 이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9~10월 전남지역 특성화고교 10곳의 고3 학생 7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실습 운영 계획 등 정책 수립 및 실습기업 선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한 경험은 19.5%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대부분(93.5%)은 실습기업 선정 및 관련 정책 수립 과정부터 학생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3.4%,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70.2%였다.

또 학생들이 현장실습 기업과 실습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은 75.6%로 나타났지만, 자세한 정보를 받은 경우는 15.7%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에 참여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실습 참여나 견학 등 탐방할 기회를 달라'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많았다. '실습 기업과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와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답한 학생은 15.4%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명동 카페의 거리 전봇대 사라진다

광주 동구, 20기 지중화 추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의 거리'에서 전신주와 전선이 사라진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특색있는 카페,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동명동 카페 거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주변 약 320m 구간 전신주 20기를 철거하고 공중으로 이어진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다.

공사는 오는 8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동구는 또한 동명동 카페의 거리 외에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구간(80m)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공고 제2022-20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계획
 1) 신청 대상: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협업위원회
 2) 지정 변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 특화지역 지정 변경 절차는 지방대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준용함
 (다만,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참조)
 3) 신청 기간: **2022. 2. 16.(수). ~ 5. 27.(금)**
 4) 변경 내용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특례의 적용 대학 확대
 ⇒ 특례의 적용범위가 적용대학 소속 교원, 학생으로 제한되어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의 소속 교원, 학생은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

규제특례명	적용대학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2.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2. 04. 18. ~ 05. 18.(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미래교육관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
 - E-mail: love56377@jnu.ac.kr
 ◦ 관련문의: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062-530-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